

# 북한 기도회

2024년 3월



# 1.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새해 들어 남한을 같은 민족이나 통일의 대상이 아닌 적대적 2국가와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 온 통일에 대한 방침을 전면 폐기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계속된 무기 개발 과시 및 각종 발사 시험 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북한의 전략 속에 한반도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한반도의 평화, 남북관계, 그리고 통일에 대한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한반도에 전쟁과 피흘림이 아닌 평화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적 평화 통일을 통해 남과 북이 다시 하나 되고 주님께 쓰임 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북한 주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공식적으로 지방 민생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매해 20여개의 새로운 지방 공장을 세우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평양과 일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주민 생활 형편이 상당히 열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한된 국가 재원을 군사력 증강 등에 집중하고 있어 지방 발전을 위한 투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이 강조하는 이민위천에 진정성 있게 나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핵과 무기가 체제의 안녕을 보장할 수 없음을 깨닫고 방향전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의 심해지는 빈부/지역격차가 완화되고 소외된 주민들의 생존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 3.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법률과 강화된 단속 및 처벌로 한류 미디어를 포함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태 척결을 위한 노력이 강도 높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는 당국의 강화된 통제와 공포정치 속에서 침해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를 적대국으로 재정립한 만큼, 한류 문화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도는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북한의 비인간적인 억압과 통제, 그리고 과도한 형벌과 단속이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우리식의 인권이 아닌,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생활 환경이 개선되는 진정한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4.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3년 4월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리 지하교회 적발사건이 보도된 데 이어 선교현장에서는 여러 건의 지하교회 적발 사건 및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사건 소식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에 대한 억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갇혀 있는 성도들과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29조(성목화물, 색정, 및 미신전파죄)  
성목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목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 같은 것을 보았거나 보관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성목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목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유통, 유포한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종교활동  
관련 처벌 규정>



## 5. 강제 북송의 위기에 처한 제 3국 탈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3년 10월 중국에서 600여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 것으로 알려져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아직 1천여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 수감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송 당했을 시 경험하는 고문을 동반한 심문과 처벌을 고려할 때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중국에서 신앙을 가지게 된 탈북자들은, 이들의 신앙 및 선교사 접촉 여부 등이 발각될 경우 정치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우리의 특별한 기도가 요청됩니다.

탈북민 강제 송환이 중단되고 붙잡혀 있는 탈북자들에게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6. 북한 선교를 위한 세계 교회와의 협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첫 해외 관광객들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97명의 러시아 단체관광객들은 2월 9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평양과 원산 일대를 관광하였습니다. 3월에도 러시아 발 2, 3차 북한 단체관광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해외 관광 사업이 재개된 만큼 북중, 북러간 인적 교류 협력도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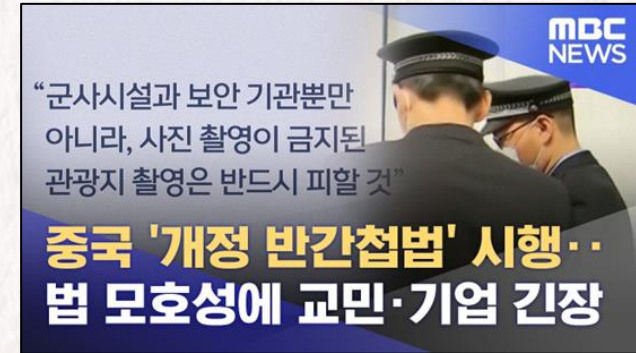
북한 선교에 있어서 북한 방문 및 북한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중국과 러시아, 그 외 세계 각지 교회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를 북한 선교로 동원하고 언어나 문화이해 등을 돕는 가운데 아름다운 선교적 협력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7. 해외 북한선교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과 인접국 간의 교류가 재개 및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교 현장을 위한 기도가 요청됩니다. 그동안 코로나 대유행과 중국의 정책으로 인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북러 관계 밀착으로 인한 러시아 내 탈북자에 대한 처우 악화 등으로 선교 현장의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체류와 활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북한 선교의 귀한 사명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선교 현장에 성령 충만하고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역이 안전한 가운데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8.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끝났지만 여전히 북한의 국경 통제로 인적 왕래가 중단되어 있는 가운데 라디오 방송 사역은 막힌 담을 넘어 북녘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 생명의 강 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들이 제작, 송출될 수 있도록 방송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상 악화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청취 장애가 최소화 되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북녘의 주민과 성도들이 강화되고 있는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단속 열풍을 잘 피해서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